

1. 출제문제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를 근거로 활용하여 《보기1》의 밑줄 친 ㉠과 같은 상태가 '혐오의 발생'과 관련해 시사 하는 바에 대해 논술하시오. (700자±70자, 40점)

문제 2 [라], [마], [바], [사]를 토대로 《보기2》와 같은 혐오의 확산이 일어나는 이유를 논술하시오. (800자±80자, 60점)

<보기 1>

최근 우울이나 공황, 분노와 같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 교수 (○대 정신 건강 의학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 가지 양상이 있다. 하나는 강박증이다.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이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고, 학생도 이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이다. 이 학생들은 자존감의 근원이 성적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갈수록 이것이 어려워져 불안하고 예민해진다. 더 잘하고 싶고 잘 안되거나 실수하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다른 한편에 있는 것이 분노와 무기력이다. ㉠이들은 늘 화가 나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 감정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상태로 무기력하게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

<보기 2>

지원이는 입가에 투명하고 커다란 침을 흘리며 잠들었고, 오랜만에 밖에서 마시는 커피는 맛이 좋았다. 바로 옆 벤치에는 서른 전후로 보이는 직장인들이 모여서 김지영 씨와 같은 카페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얼마나 피곤하고 답답하고 힘든지 알면서도 왠지 부러워 한참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때 옆 벤치의 남자 하나가 김지영 씨를 흘끔 보더니 일행에게 뭔가 말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간간이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나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커피나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싶다…… 맘충 팔자가 상팔자야…… 한국 여자랑은 결혼 안 하려고…….

김지영 씨는 뜨거운 커피를 손등에 왈칵왈칵 쏟으며 급히 공원을 빠져나왔다. 중간에 아이가 깨서 우는데도 모르고 집까지 정신없이 유모차를 밀며 달렸다. 오후 내내 멍했다. 아이에게 데우지도 않은 국을 먹였고, 깜빡 기저귀를 안 채워 옷을 다 버렸고, 세탁기 돌려 놓은 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지원이가 잠든 후에 꾸깃꾸깃해진 빨래들을 널었다. 회식을 하고 12시가 넘어서 들어온 정대현 씨가 봉어빵 봉지를 내려놓고서야 점심도 저녁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종일 밥을 먹지 않았다고 말하자, 정대현 씨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나보고 맘충이래."

김지영 씨의 대답에 정대현 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댓글 다 초딩들이 쓴 거야. 그런 말 인터넷에나 나오지 실제로 쓰는 사람 없어.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

"아니야. 아까 내가 직접 들어. 저기 길 건너 공원에서 서른쯤 된 양복 입고 회사 다니는 멀쩡한 남자들이 그랬어."

제시문 [가]

지균충은 지방학생을 우대하는 지역균형 선발, 논술충은 논술전형, 학종충은 학생부 종합 전형, 재외국민충은 외국에서 체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뜻한다. 굳이 전형 방법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전형을 치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밀어내는 배타적 문화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같은 차별의식 때문에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 재외국민 전형으로 국내 한 사립대에 입학한 김○○ 씨는 학생들 사이에 지역균형 선발이나 재외국민 전형을 치른 학생들을 열등생 취급하는 분위

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생 박○○ 씨는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힘든 고교시절을 보내고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어 입학한 친구들과 지방 또는 외국에서 편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같을 수 없다”며 “특히 재외국민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을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서 벌레를 뜻하는 ‘총’이란 말을 친구들에게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학생들 사이에 지역균형 선발이나 재외국민 선발은 실력보다 운이 좋아 입학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은 ‘지균총’에게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은 쉽게 입학한 ‘지균총’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제시문 【나】

혐오를 발산하는 개인과 사회를 만드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빈곤의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빈곤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이론은,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놓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지위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이므로 성공한 자는 그럴 만하고, 실패한 자는 능력이 없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가난한 자의 생활 방식이나 그들이 지녔다고 믿는 태도와 모습으로 빈곤을 설명한다. 두 번째 이론은 계급이나 성, 인종, 직업적 위치, 교육 등 사회 내 구조적 힘이 자원 배분 방식을 결정한다고 본다. 이러한 설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야망이 없는 현상을 가난의 원인으로 보기보다 가난을 억압된 상황의 결과라고 본다.

이처럼 빈곤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두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좋지 않아 취업이 잘 안 될 때 혹은 가난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때, 그것을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문제에 거시적으로 접근하여 원인을 찾아낸다는 것은 인지적으로 많은 능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이 불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난이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나만’ 정신 차리면 잘 될 거라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니면 반대로 자신이 힘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 ‘이게 다 XX 때문’이라고 하는 등 비난의 대상을 특정하고 그들을 배척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제시문 【다】

1854년 8월 런던의 브로드가에 퍼진 콜레라는 불과 열흘 만에 주민 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갔다. 당시 과학자들은 별다른 증거 없이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다. 보통 악취가 나는 하수구나 늪지대 근방에서 전염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더러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콜레라를 옮기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어 가난하고 불결한 이들이 콜레라 확산의 주범으로 몰렸다. 19세기 콜레라가 미국 여러 도시에서 유행할 때는 카톨릭 신자였던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배척의 대상이 됐다. 1832년 뉴욕에 퍼졌던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350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의사 존 스노는 문제에 다르게 접근하였다. 그는 대담하게도 공기가 아니라 물이 콜레라균의 매개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려고 했다. 그는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콜레라의 전염 양상을 관찰하고 발병자와 사망자의 집 위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최초 발병자의 집 지하에 있는 정화조와 브로드가 지하에 있는 상수도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그가 최초 발병자의 장에서 나온 세균이 정화조와 토양층을 통하여 브로드가의 상수도에 유입되었고, 그 상수도에서 물을 길어 먹었던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제시문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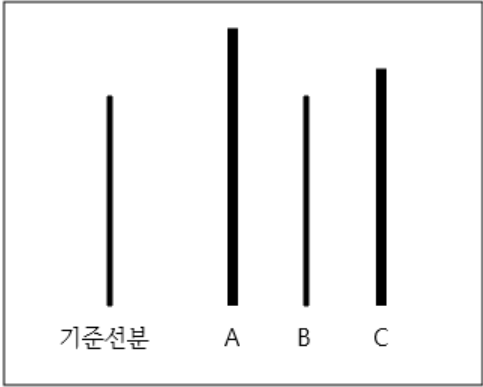
몇몇의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내 맘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또 미국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다른 미국 사람도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다.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미국인 하나하나가 다르다는 데 주목하지 않고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할 경우 ‘동일시의 오류’라고 부르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우나 미국 사람 모두 하나하나가 ‘개별적 사물’이다. 만일 각각의 개별적 사물에 다른 낱말을 사용하거나 개별적 사물의 특성에 주목한다면 모든 개별적 사물을

하나의 관념 꾸러미 속에 몰아넣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개별적 사물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동일시의 오류는 국가와 개인 간에도 발생한다. 과거 독일과 프랑스는 오랫동안 전쟁을 했다. 그런 적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중, 1차 대전이 동원된 톨러라는 젊은이는 독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프랑스 국민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인다'는 열의를 갖고 전장에 갔다고 한다. 그런데 벨기에 전선에서 전사한 전우를 묻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있을 때, 곡괭이 끝에 사람의 시체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고, 그때 퍼뜩 알게 된다. '이것은 독일인도, 프랑스인도 아니다. 인간의 시체다. 지금까지 독일인과 프랑스인이 싸웠다고 믿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인간인 개인들끼리 싸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톨러는 곡괭이를 내던지고 탈주해서 독일로 돌아와 혁명 운동에 몸을 던졌다. 우리의 역사에는 개별적인 인간을 국가명으로 환원하여 오해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

제시문 [마]

아시라는 과학자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선분 길이 비교' 실험을 하였다. 피험자들은 시각 판단 실험에 임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아래 그림과 같이 기준 선분과 길이가 같은 것을 비교 선분 중에서 찾으라는 질문을 받았다.



정답은 B선분이며, 이것은 누구도 틀리지 않을 만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피험자들은 큰 책상 주변에 반원형으로 앉아서 차례대로 큰 소리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험자들이 앉는 자리는 제비뽑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상황은 사전에 조작된 것이었다. 아홉 명의 피험자들 중 여덟 명은 연구자의 조수였고, 진짜 피험자는 대답 순서가 끝에서 두 번째 자리에 배치되도록 제비뽑기를 미리 조작한 것이다.

실험이 시작되자 앞의 일곱 명의 가짜 피험자들은 기준 선분과 길이가 같은 것은 A선분이라고 일부러 틀린 대답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열두 번 반복되었다. 이 실험에서 알고자 한 것은 진짜 피험자인 여덟 번째 사람의 대답이었다. 놀랍게도 열두 번의 시행 중 최소한 한 번 이상 집단의 틀린 대답에 동조한 피험자는 74%에 해당하였다.

한편, 아시는 위 실험과 동일한 상황에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쪽지에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정답을 선택하였다. 즉, 자신의 의견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면 동조 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시문 [바]

자연은 우리 인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모두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로 태어나 이 땅 위에서 짧은 시간을 살다가 죽어 그 육체로 땅을 비옥하게 할 것이요. 당신들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서로를 도우시오. 당신들은 무지하므로 서로를 가르치고 용인하시오. 만약 당신들 모두가 같은 의견이고 단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이라면 당신들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당신들 각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이오.

나는 당신들 인간에게 땅을 경작할 팔을, 그리고 자신을 인도해 줄 한 줌의 이성을 주었소. 나는 당신들 각자의 가슴에 서로를 도와 삶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동정심의 싹을 심어 주었소. 이 싹을 꺾거나 썩히지 마시오.

이 동정심의 싹이야말로 신이 내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오. 그리고 당신네의 가련할 수밖에 없는 당파적 논쟁의 격앙된 고향으로 자연의 목소리를 지우지 마시오.

당신네 인간들이 걸핏하면 벌이는 잔인한 전쟁, 과오와 우연과 불행이 펼쳐지는 영원한 무대인 그 전쟁 한복판에서도 오직 나 자연만이 당신들을, 당신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당신들 서로 간의 필요로 결합하게 할 수 있소. 오로지 나 자연만이 국가의 귀족층과 사법부 사이, 세속 권력 집단과 성직자 사이, 도시민과 농민 사이의 끊임없는 분열로 빚어지는 참담한 재앙에 증지부를 찍을 수 있소.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권리를 끝없이 요구하고 있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마음 내키지는 않겠지만, 가슴에 호소하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오.”

제시문 【사】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정보를 만들어 내고 전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정보를 수집, 처리, 전달하는 일이 경제 활동의 최우선이 되면서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에서 다양한 인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누리 소통망(SNS)이 새로운 매체로 등장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누리 소통망을 통해 수집하고 전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누리 소통망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모두 진실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누리 소통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선별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된다. 이때 정보처리 규칙은 이용자가 좋아하고 자주 보는 것 위주로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편견과 고정 관념 역시 강화된다는 점이다. 이른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필터 버블은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검색 업체나 누리 소통망 등이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특정 정보만 편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엘리 프레이저는 2011년 한 강연에서, 자신의 누리 소통망 계정에 보수 성향의 글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정보 통신 업체 측이 자신의 이용 내역을 분석하는 정보 처리 규칙을 통해 보수 성향의 정보들을 걸러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 문제해설

출제 의도

1. 문제1은 혐오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2. 문제가 발생하는 진정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과 이와는 달리 왜곡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의 차이를 파악하고 양자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3. 문제 해결의 요점은 ① 각 제시문을 변별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서술할 수 있는가, ② 각 제시문에서 주장의 핵심을 담은 주요 개념을 추출하여 이를 <보기1>의 ㉠과 연관지어 서술했는가이다.
4. 문제2는 <보기2>에 나타난 명백한 혐오의 확산 현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혐오의 확산이 일어나는 이유를 제시문에서 찾아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5. 문제2에서는 제시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했는가가 중요하다. 각각의 제시문이 혐오의 확산과 관련하여 취하고 있는 관점을 구별지어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만 한다. 따라서 제시문을 멍뚱그려 서술하는 방식의 답안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6. 문제2는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2>에 나타난 혐오의 확산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서술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러한 적용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만 하는 것은 문제의 출제의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제 근거

1.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국어과, 사회과		
관련 성취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교과명: 국어과</p> <p>성취기준1</p>	<p>독자의 머릿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속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 자세를 기른다. 독자는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의 구체적 상황이나 사회·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나아가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과목명</p> <p>국어</p>
	<p style="text-align: center;">교과명: 국어과</p> <p>성취기준2</p>	<p>이 성취기준은 글을 읽고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 글의 전개 방식 등을 파악하는 사실적 독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사실적 독해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여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내용의 중요도 평정,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구분, 각 문단 내용들 사이의 관계 파악, 선정한 내용들의 종합과 재구성 등의 독해 기능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과목명</p> <p>독서</p>
	<p style="text-align: center;">교과명: 사회과</p> <p>성취기준3</p>	<p>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 사회적 소수자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양상과 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는 인종, 민족, 국적, 신체, 젠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과목명</p> <p>사회·문화</p>

2.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민원식 외	좋은책신사고	2018	380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20	154
	국어	박영민 외	비상	2018	241
	수능특강 독서	편집부	EBS	2021	65
	사회·문화	박선웅 외	금성출판사	2018	31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21	192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21	226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충’이란 단어로 혐오를 드러내는 사례를 보여주는 글이다.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외면하고 약자에 대한 공격을 통해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이 겪는 실패의 원인을 돌리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빈곤을 설명하는 두 관점, 즉 개인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소개한 글이다. 자신이 실패한 사회적·구조적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대상을 비난하고 배척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혐오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글이다.

제시문 【다】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 두 가지 대조적인 방식, 즉 과학적 접근과 마녀사냥식 접근을 소개한 글이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특정인을 배척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원인에 대한 탐구 부족과 책임의 전가가 혐오를 발생시킨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제시문 【라】는 언어 사용에 나타나는 동일시의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언어로 인해 개체의 다름을 무시하고 개체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를 통해 대상 일반에 대한 고정관념(편견)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혐오가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다.

제시문 【마】는 타인에 대한 동조로 인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다. 언어나 상황이 잘 못된 것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 없이 막연하게 타인에게 동조하여 혐오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로 인해 혐오가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글이다.

제시문 【바】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실린 볼테르의 관용론 중 일부이다. 볼테르는 자연을 화자로 내세워 탐욕과 무지에 빠진 인간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한 자각의 부족, 관용과 동정심의 부족이 혐오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음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내용이다.

제시문 【사】는 누리소통망에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특정 정보만 편식하게 만드는 필터버블 현상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편향된 정보나 언어가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산될 수 있고, 누리소통망을 통해 특정 정보만을 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편견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채점 기준 및 평가의 주안점

1. 문제1

- ㉠ 제시문을 혐오의 발생과 관련하여 변별적으로 이해했는지 여부.
- ㉡ 제시문의 내용과 <보기1>의 ㉠과 같은 상태를 적절하게 연결지어 설명했는지 여부.

※ 평가의 주안점

- ㉠ <보기1>의 ㉠에 나타난 상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은 자신이 겪는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을 직적접으로 드러내고 있음.
- ㉡ 각각의 제시문을 정확하고 변별적으로 파악했는지 여부. 특히 제시문 【다】가 문제의 원인을 찾는 대조적인 방식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 ㉢ 제시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했는지 여부.

2. 문제2

- ㉠ <보기2>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여부.
- ㉡ 제시문 【라】, 【마】, 【바】, 【사】를 혐오의 확산과 관련하여 변별적이고 명료하게 이해했는지의 여부.
- ㉢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2>에 나타난 혐오 현상을 적절히 설명했는지 여부.

※ 평가의 주안점

- ㉠ 제시된 조건을 잘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했는가.
- ⇒ 혐오의 확산이라는 관점을 토대로 다양한 지문들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 ㉡ 제시문과 <보기2>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답안에 반영했는가.

예시 답안

1. 문제1

오늘날 사람들은 분노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감정만을 표출하는 데 급급하며, 이러한 상태는 제시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혐오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의 제시문에서는 분노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자신의 열등함을 특정한 대상의 탓으로 돌리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가)에서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은 지역균형, 재외국민 전형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 배타심과 혐오감을 통해 자신의 실패를 보상받으려고 한다. (나)의 제시문에는 빈곤을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 즉 개인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이 등장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는 등을 돌린 채, 오직 특정 대상에게만 혐오를 퍼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다)의 제시문에는 문제 해결의 두 가지 태도가 동시에 등장한다. 첫 번째는 앞의 제시문들처럼 마녀사냥식으로 약자를 혐오하고 배척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의사 존 스노는 문제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상적인 태도는 존 스노와 같은 합리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문제 해결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이나 고민이 없는 태도는, 언제든지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척 나아가 혐오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주의하고, 언제나 사회적 문제에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문제2

<보기2>에서 남성들은 '맘충'이라는 혐오 조장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전업주부인 여성을 비하하고, 노골적인 성차별의식을 드러낸다. 이렇게 혐오의 확산이 일어나는 이유는 제시문 (라), (마), (바), (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는 동일시의 오류가 혐오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개인은 모두 저마다 고유한 개성을 지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개인을 집단의 속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마)에서는 동조 현상과 개인 의견의 노출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실험이 소개되는데, 이를 통해 집단 편향의 오류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바)는 인간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망각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수하려 할 때, 또한 관용과 동정심이 부족할 때 혐오가 확산될 수 있음을 자연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준다. (사)는 오늘날 SNS와 같은 미디어의 확산으로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 역시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에만 맞추어 정보를 습득함에 따라 비슷한 선호를 지닌 개인이 집단을 이루고 혐오가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살펴본 혐오의 확산 이유는 <보기2>에서도 모두 나타난다. <보기2>에서 김지영 역시 고유한 개인으로서의 삶은 부정당하고 여성 일반의 이름으로 비난받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혐오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장인들은 김지영이라는 개인에 대한 어떠한 관용이나 동정의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듯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혐오 확산의 중요한 기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준다.